

(관리번호 6-6-58)

공약사업	영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사업목적	대중교통 소외마을 주민들의 교통비용 부담 절감과 이동 편의도모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담당부서	새마을경제과 장	이상홍 (730-6230)	교통행정 담당	김상덕 (730-6251)	실무관	김지웅 (730-6255)		
협조부서	-			이행률	100% (이행후 계속추진)			
사업개요	위치	영덕군 관내						
	사업량	43개노선 1일 160회 운영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전 : 구간요금(기본요금 + 거리 요금107원/km) 변경후 : 전구간 1,200원(중고 900원, 초등 500원) 						
추진실적/ 실천계획 ('14~'18년)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2. 1. ~ : 사업시행 						
	'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추진 						
	'17년	<p>포항~영덕간 철도 개통에 따른 노선변경</p>						
	'18년	지속추진						
	임기 후	"						
예산계획 (억원)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임기후		
	13.5	1.5	3	3	3	3		
	국비							
	도비							
	군비	13.5	1.5	3	3	3		
	기타							

사업효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군민들의 교통 복지 여건 개선 연간 탑승객(360,000명)의 10% 증가(40,000명)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군비보조금 증가
확장방안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교통카드 도입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 향상

□ 추진상황

경북도민일보

2015년 01월 23일 금요일
007면 지역종합

영덕,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내달부터 전지역 1200원

좌석버스도 학생 할인

영덕군은 내달 1일부터 영덕군 전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는 기본요금 1200원에 거리별 가산해 최고 4500 원까지 버스요금을 차등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1200원만 지불하면 군내 어디에나 갈 수 있어 이용객들이 최대 73%의 요금을 절약하게 됐다는 것.

또한, 기존 일반버스에만 적용되던 학생할인요금을 좌석버스에도 적용, 내달 1일부터는 이동거리와 일반·좌석버스 구분 없이 일반인 1200 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500원만 내면 영덕 어디든지 버스로 찾아 갈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단일화는 이희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원거리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데 시내버스 요금까지 더 부담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요금시비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